

Restorative Materials

우이형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연자약력

1979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8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독일 튀빙겐대학 방문교수
 현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



치과 수복재료는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금속이다. 금속을 이용해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Lost Wax Technic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며 이 방법은 인상채득 후에 모형의 제작에서부터 여러단계의 가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금속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만족스런 적합도를 가진 보철물을 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사용하는 금속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는 특정 금속에 과민 반응이나 알러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적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 금속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점차 비귀금속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금속은 cold work이 매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금속은 구강내의 높은 하중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우수한 물성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보철 재료이다. 그러나 점차 환자들이 금속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고 보다 심미적인 문제로 인하여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metal-free) 보철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금속 수복물의 제작시에 lost wax technic을 이용하지 않고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인 galvanofarming과 capillary technic을 이용한 Metal-Ceramic Restoration의 제작 방법과 Co-Cr과 같은 cold work이 어려운 재료를 이용한 Telescopic & Implant Prosthesis의 제작 및 Metal-Free 재료인 완전 도재관의 slip casting, CAD/CAM, Copy milling 방법을 이용한 제작방법과 레진 수복물의 특성과 제작 과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